

1984년 9월 1일

파수대

여호와와의 천국 선포



1914

지나가지 않음
시대

-1914년-

역사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1914년 6월 28일 아침에 ‘보스니아’ 인의 마을 ‘사라예보’에서, 운전수는 그의 지시 들 오해하고 방향 전환을 잘못하였으며, ... 그리 하여 승객들은 기다리고 있던 암살범이 겨냥하지 않고도 그들을 쏘아 쓰러뜨릴 수 있는 지점으로 인도되었다.

“한 자루의 권총에서 나온 두발의 총알이 세계를 진동시켰다. 작은 돌맹이에 불과한 범죄였지만, 일단 그것이 떨어지자 산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어서 4년간의 전세계적인 목격이 뒤따랐다. 수백만명이 불시에 죽음을 당하였다.”
— The American Heritage History of World War I.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치스 페르디난드’와 황태자비 ‘조피이’의 피살은 1914년을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특징지은 사건들을 촉발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산 사태”는 1914-1918년의 대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 대전과 목격의 “돌 덩어리들”이 그칠 새 없이 떨어지고 있다.

회기적인 세대

제 1차 세계 대전의 중요성에 관해, 영국의 저술가 ‘J. B. 프리스틀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당신이 나처럼 1894년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거울에 갑자기 톱니 모양의 커다란 금이 간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후에 당신의 정신에서 가시지 않았을 개념은 한 세대가 1914년에 끝났고 또 다른 한 세대가 1919년경에 시작되어, 빈없는 포연과 광란이 ... 그 사이를 메웠다는 개념이다.”

흔히 일컫는 바, 1914년의 “최성된 세대”의 생존자들은 참호와 대포로 시작하여 세계를 멸절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으로 끝나가고 있는 중대한 시대를 살아왔다. 이러한 “발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과 잘 부합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
* ‘모버드 오펜’ 저 The Generation of 1914 (1914년 세대)에서.

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누가 21:10, 25, 26.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이 “세상 끝”을 특징짓는 복합적 표징의 일부이다. 이 잡지에서 자주 밝힌 바와 같이, 1914년 이래 이 예언은 거대한 규모로 성취되어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1914년의 세대에 관해 매우 의미심장한 점을 부가하셨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리라.”—마태 24:3; 누가 21:29-32.

어떻게 이러한 말씀이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1914년 세대에게 적용되는가? 무슨 사건들을 고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1914년 지나가지 않을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태 24:34) 그러면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 교수 ‘로버트 오울’은 그의 저서 「1914년 세대」(The Generation of 1914)에서, 특이한 정의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역사에서 세대란 역사의 연대적 한계나 경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의 연대가 아니다. ... 그것은 한 가지 경험이나 일련의 경험을 중심점으로 하는 자장 범위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 세대 의식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과거는 끝났다는 기본을 주는 상당히 공통적인 준거 기준이다. ... 이러한 준거 기준은 언제나 전쟁, 혁명, 전염병, 기근 및 경제 공황과 같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에서 비롯하게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14-18년의 대전과 그 여파는 확실히 하나의 세대를 특징짓는 “준거 기준”을 형성하였다. ‘오울’ 교수가 논평한 바와 같이 제 1 차 세계 대전은 “과거는 끝났다는 압도적인 기본”을 초래하였다. “그 전쟁을 살아서 통과한 사람들은 1914년 8월에 하나의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신념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여러 차례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지나가지 않을 세대’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은 “세대”가 30, 40, 70 혹은 심지어 120년의 세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정해진 햇수가 아니라 사람들 및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성서에서 "세대"라고 번역된 희랍어 단어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이와 관련하여 동 시대, 같은 연령의
 사람들의 무리라는 의미가 있음"([신약 신학 신
 국제 사전] [The New International Dic-
 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전체 총수, 확대
 되어 특정한 시기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
 두 즉 동 시대 사람들을 포함함"('원어 바우어'편
 [신약 회영 사전]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제 5 판, 1958년) 이러한
 정의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쓰
 였으며 태어난 사람들과 그 시기에 살아 있는
 사람들 전부를 포함한다.

만일 예수께서 "세대"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
 셨고 그것을 1914년에 적용시킨다면, 그 세대의
 첫날 아기들은 현재 70세이거나 그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1914년에 살아 있던 다른
 사람들은 현재 80대나 90대이며, 100세에 달
 한 사람들도 소수 있다. 아직도 수백만명의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 있다. 그들이 모두 "지나가
 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를 것이다. — 누가
 21:32.

1914년 이래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세계 대
 전 및 다른 여러 가지 주요 분쟁들과 함께 기근,
 지진, 온역 및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
 아 왔다. (누가 21:10, 11)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리"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24:34) 그러므로, 당신은
 이러한 질문을 할지 모른다. 1914년의 세대가
 목적해야 할 다른 어떤 주요 사건들이 남아 있는
 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그 세대를 위해
 남아 있는 기간 내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특히 1919년 이래 '어호와와 증인'들은 세계
 적인 반대에 직면해서도 팔복할 만한 규모로 다
 른과 같은 예수의 예언을 심취시켜 왔다. "이 천
 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
 구 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
 24:14) 그렇다. 그 일은 끝이 오기 전에 어호
 위에서 만족하실 정도로 완수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다른 어떤 사건들이 1914년 세대를 위해 남아

"1914년 8월에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또다른 세계가
 시작되었다"



있는 기간 내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가? 성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인 "야
 마겔론"에서 절정을 이룬 "큰 환난"으로 인도하
 며 그 환난의 일부를 이룰 특정한 주요 사대 전
 전들을 명백히 알려 준다. (마태 24:21; 계시
 16:14, 16) 이러한 사대 전전이 무엇인지를 알
 고 너무 늦기 전에 필요한 보호책을 취하는 것
 은 긴급한 일이다. — 스바나 2:3.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대 전전 중의 하나를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지 못함이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 멸망이 홀연히(즉각, 신세) 너희에게 이르
 리[라.]" 이 예언은, 현 사물의 제도의 끝이 오
 기 바로 전에 국제 연합에 의해서이든 독단적으
 로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이든 간에 어
 떤 이해적인 방법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선언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준다. 그 선언
 에 뒤이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바울'은 "그
 때에 멸망이 즉각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하였
 다. — 데살로니가 전 5:2, 3, 신세 참조.

종교가 문제가 되는가?
 그러한 멸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 당신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
 에 속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
 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는가? 그러한 종교
 들의 장래는 어떠한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열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를 것이다'



영감받은 사도 '요한'은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지닌 "큰 음녀"라는 상징적 표현 아래,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임금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여러 세기 동안 유익을 받아들인 한 제도를 묘사하였다. 이 "음녀"는 또한 "상고들" 즉 세상의 상업적인 요소와의 관계로부터도 유익을 얻어 왔다. 또한 "대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도 지배해 온 이 제도는 무엇인가? 바로 거짓 종교이다!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된 종교는 모두 사실상 세계 제국인이 "큰 음녀"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 음녀의 가까운 장래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제시 17:1-8, 15; 18:15-17.

제시록 17:16은 국제 연합("붉은 및 짐승") 내의 급진적인 정치 요소들이 종교적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시킬 것임을 알려 준다. 이미, UN 내의 강력한 무신적 및 반종교적 요소들이 그들의 영역 내의 종교를 말살시킬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정치 요소들은 그리스도교국뿐 아니라 다른 큰 종교 제도들도 황폐시키는 더욱 격렬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중실하게 선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며, 보복 곧 하나님의 '아마겔돈' 전쟁을 유발할 것이다! —제시 17:3, 12-16; 16:14-16; 에스겔 38:10-12, 18-23; 스가라 2:8.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순수한 인간의 견지에서, 이러한 사태 전개 이 1914년 세대가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914년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예언적 사건들의 성취는 비교적 더딘 인간의 조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여호와 의 예언의 말씀은 "이(1914년)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21:32) 그리고 영감받은 불침묵의 예언의 근원 이신 여호와께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저지 아들의 말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 이사야 60:9, 10; 55:10, 11.

인간의 불신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성서 예언이 성취된 예들이 과거 있었는가?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예들 중 하나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기원 33년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둘 하나도 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예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 21:6, 20.

33년 후에, '세스티우스 갈루스' 휘하의 '로마' 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도 '갈루스' 장군은 그의 군대에게 퇴각을 명하였다. 그 결과 일부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거룩한 도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다. 4년 후에, '티투스' 휘하의 '로마'군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멸망시켰다.

그러하여 예수의 예언은 아주 세부점에 이르기까지 적중하였다. 'G. A. 윌리엄슨'이 '요세키스'의 「'유대'인의 전쟁」(The Jewish War)에 대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서의 외에 다른 자료의 근원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경교가 과장된 [지나친]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 그 분명한 성전이 둘 하나도 둘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그것은 과연 가능하였으며,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멸망은 철저하고 완벽하였다. ... 비극적인 이야기 전체가 이미 놀라우도록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다."

‘세무살렘’에 관한 예수의 예언이 기원 33년 세대의 생존 기간 내에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세대에 관한 그분의 예언들도 1914년 세대의 생존 기간 내에 성취될 것이다. (다니엘 12:4) 이것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앞에 놀라운 전망이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또한 그 세대에지 영감을 미칠 의미 심장한 사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보다 먼저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왕국, 신세]가 가까운 줄 알라.” — 누가 21:28, 31.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왔다는 것은 현 세대의 분열되어 있는 정치, 종교 및 상업 제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순종하는 인류를 위한 의로운 새 정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러한 마땅히 아래서의 영원한 생명을 택할 수 있다. (베드로 후 3:13; 요한 17:3) 그렇

당신은, 1914년 세대의 생존자들과 함께 살아서 새 질서를 볼 수 있다



다. 당신은 지나가지 않을 세대인 1914년 세대의 생존자들과 함께 살아서 이 약속된 새 질서를 볼 수 있다.

균형을 유지하라 —어떻게?

큰 건축 회사에서 다년간 중역으로 일하면, ‘계니드’는 갑자기 실직하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회사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어 때때로 장시간 일을 하고 있다.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라고 그는 시인한다. 가정 생활 및 사업상의 일들과 회중적 책임들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데이빗’은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 태어난 자식으로 맞이받은 상황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다. ‘뉴우요르크’ 시에서 여러 해 사무직 일을 하던 그는 자신의 작은 가족과 함께 시골로 이사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장로 겸 ‘파이오니아’ 봉사자(전시간 왕국 선포자)로 일하면서 장사를 배우느라 고무하고 있다.

‘빌’은 이미 그의 두 자녀가 하고 있는 것처럼, ‘파이오니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는 여러 달 동안 그 지방 회중의 새 왕국회관의 일을 볼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가 지불해야 할 청구서는 다시 늘어났다. “내가 ‘파이오니아’를 한다는 게 자꾸 요원해지는 것만 같습니다”라고 그는 시운한 듯이 말한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도처에 있는 ‘어호와 의 증인’들처럼 이들과 그들의 가족은 “처신하기 어려운 위험한 때”인 이 “마지막 날”에 영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데모데 후 3:1, 신세) 이들 그리스도인의 문제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가?